

보도자료

2012년 8월 16일(목)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스마트네트워크서비스팀 성석함 팀장(☎750-1780)
스마트네트워크서비스팀 정준욱 사무관(☎750-1785) jungjw@kcc.go.kr

빅데이터 포럼 출범,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함께 댈다.

최근 ICT 분야에서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는 빅데이터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8월 16일(목) 오전 11시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공동으로 통신사 및 방송사, 전자업체, 빅데이터 전문업체 등 관련업체와 학계,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빅데이터 포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빅데이터란 데이터의 형식이 다양하고 유통속도가 빨라서 '기존의 방식으로는 관리분석이 어려운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데이터에서 '패턴'을 발견하고 '가치'를 얻어내는 것이 핵심이다.

빅데이터 활용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강화, 사회 현안 해결 그리고 스마트 라이프 구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실시간 재고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공공분야에서는 공공 서비스 향상 및 미래의 위험요소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지능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원하는 상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각국 정부와 글로벌 IT기업들은 빅데이터가 향후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IT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우위 확보를 위해 연 2억 달러를 기술 개발에 투입하는 '빅데이터 이니셔티브' 계획을 지난 3월 발표하였고, 구글, 아마존, IBM 등 IT서비스 기업은 빅데이터 시장 선점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인프라와 역동적인 데이터 생산·유통량을 기반으로 최근 빅데이터 산업과 서비스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으나 글로벌기업과의 기술력 격차가 큰 실정이다. 이동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등이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초기단계이다. 이 때문에 빅데이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지원과 민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생활밀착형 빅데이터 서비스 발굴, 기술 확보와 인력 양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분야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포럼 창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빅데이터 포럼에서는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과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술력을 갖춘 연구기관 및 전문기업 등이 참여하여 회원사 간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방송통신 관련 데이터를 보유한 통신사와 방송사, 보건 및 교육정보를 보유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참여하고, IT 및 빅데이터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삼성 SDS, LGCNS, 다음소프트, 솔트룩스, SAS코리아 그리고 LG전자 등 전자업체 등도 동참해 대학, 연구기관 등과 함께 국내 빅데이터 기술 경쟁력 확보 및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포럼은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 실질적인 운영과 집행을 위한 운영위원회, 전략 및 의견제시를 위한 자문위원회 그리고 전문분야에 대한 논의기구인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포럼 의장은 SKT의 하성민 사장이 맡고, 사무국은 한국방송통신진흥협회가 수행한다.

포럼에서는 인력 양성 분과, 기술기획 분과, 정책홍보분과, 환경조성 분과 등 4개의 전문분과를 중심으로 1) 빅데이터 관련 정보 제공 2) 정기 세미나 및 국제 컨퍼런스 개최 3) 빅데이터 산업실태조사 4) 빅데이터 활용 분석 경진대회 5) 전문인력 양성 6) 개인정보보호 및 표준화 관련 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인력양성 분과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정보 등을 제공하고, 기술기획 분과에서는 R&D 수요 제시 및 표준화, 시범사업 발굴을 추진한다. 정책홍보분과에서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정책 제안과 빅데이터 국내외 시장 규모 및 각종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조성분과에서는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보호 등 법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포럼을 통해 기업 및 공공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빅데이터 서비스가 발굴되고,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도 포럼 논의에 적극 동참하여 빅데이터 분야가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고 고급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신용섭 상임위원은 이날 환영사에서 “빅데이터 분야는 세계 최고의 IT 인프라와 열정을 가진 IT 일꾼이 있는 우리나라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라고 지적하면서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모으고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주문했다.

한편, 창립총회와 더불어 진행된 오후 세미나에서는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한 정부 및 기업의 전략방향과 개인정보보호 등 주요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연세대 이원석 교수는 ‘빅데이터와 국가전략’, 삼성경제연구소의 채승병 박사는 ‘빅데이터 비즈니스 성공전략’, KT 이재 단장은 ‘KT 빅데이터 추진전략’, SKT 한남석 기술원장은 ‘SKT의 빅데이터 추진계획 및 현황’, 김앤장의 이강신 전문위원은 ‘빅데이터와 프라이버시 이슈’,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강선무 단장은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각각 발표하여 빅데이터 관련 최신 동향을 제공하고 빅데이터 분야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 붙임 1. 빅데이터 포럼 설립·운영안
2. 빅데이터 포럼 창립회원 명단
3.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 끝.

「빅데이터 포럼」 설립·운영(안)

□ 추진배경

- 빅데이터는 세계 최고의 인프라와 데이터 유통량을 가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분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연 논의의 장을 마련

□ 포럼 구성

-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총회와 실질적 운영을 담당할 운영위원회를 두고, 사무국은 정보통신진흥협회가 담당



- 정책홍보분과, 환경조성분과, 인력양성분과, 기술기획분과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

정책·홍보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계의견수렴 등을 통한 정부 정책 제안 ○ 법제도 개선방안 ○ 빅데이터 국내외 시장 규모 및 각종 통계 정보 제공
환경조성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작성 ○ 빅데이터 관련 표준화 연구 등
인력양성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빅데이터 관련 표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문인력 양성 ○ 전문인력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 등
기술기획 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R&D 중점연구방향 수요 발굴 및 표준화 ○ 시범사업 발굴 사업

빅데이터 포럼 창립 회원 명단(안)

o 의장단(안)

구분	번호	기관명	소속 및 직책	성명	비고
의장	1	SK텔레콤	대표이사	하성민	
부의장	2	KT	부사장	송정희	
	3	통계청 통계교육원	원장	최봉호	
	4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원장	김성태	
	5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	
	6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김홍남	
	7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김동욱	
	8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양유석	
	9	KBS	기술연구소장	목하균	
	10	다음소프트	대표이사	김경서	
간사	1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상근부회장	노영규	

o 운영위원단(안)

번호	기 관 명	소속 및 직책	성명	비고
1	한국정보화진흥원(NIA)	디지털인프라 단장	강선무	
2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책연구실장	정경호	
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송통신융합연구소장	이호진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BigData소프트웨어연구소장	황승구	
5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방송미디어실장	박동욱	
6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미래인터넷PM	임용재	
7	SK텔레콤	IT기술원장	한남석	
8	KT	SI부문 BIT추진단장	이 제	
9	SASKorea	솔루션본부장(상무)	이진권	
10	삼성SDS	BI 컨설팅그룹장	김진도	
11	LGCNS	AA센터장	박용익	
12	LG전자	Creative Innovation Center 장(상무)	황정환	
13	KBS	방송기술연구부	정병희	
14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보화기획부장	김성훈	
15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부장	유재택	
16	솔트룩스	대표이사	이경일	
17	다음소프트	부사장	송성환	
18	CJ헬로비전	부장	김홍익	
19	ECMiner	대표이사	민광기	
20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서정연	
21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	조성준	
22	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이원석	
23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융합학과 교수	강필성	
24	강원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공학부 교수	김화종	
25	강릉원주대	교수	최재홍	
26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전략사업본부 부장	양창준	

빅데이터 서비스 활성화 방안(6.21) 주요 내용

1. 추진배경

□ 스마트기기와 SNS 등의 확산으로 인한 데이터 폭증, 컴퓨팅 능력의 향상 및 데이터 관리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

※ Economist, McKinsey, 세계경제포럼 등은 빅데이터를 차세대 IT 키워드로 선정

○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형식이 다양하고 유통속도가 빨라서 '기존 방식으로는 관리·분석이 어려운' 대용량 데이터를 의미

□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출시가 기대되는 인터넷 및 방송통신 업계의 적극적 대응 필요

○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와 이를 통해 생성되는 데이터가 새로운 가치 창출과 공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정책마련이 필요

※ 지난해 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정부 구현(안)'이 마련되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래 비전을 제시('11.11)

2. 주요 현황

□ 해외 동향

○ 미국 등 각국 정부는 빅데이터가 향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원천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과감한 투자

※ 미국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담은 2억불규모의 '빅데이터 이니셔티브'를 발표('12.3)

2012.12.31. 지상파 아날로그TV 방송 종료, 디지털TV 방송시대 본격 개막 !

- 구글, 아마존, IBM 등 IT서비스기업을 중심으로 빅데이터 시장 선점 및 확대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일반 기업들도 실시간 재고분석을 통한 비용절감, 이용자의 소비 패턴을 고려한 맞춤형서비스 제공 등에 빅데이터를 활용

□ 국내 동향

- 데이터의 단순한 활용을 넘어 빅데이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기업은 많지 않음

※ 빅데이터를 보통이상 알고 있는 경영자 비율은 56.4%이나 적극 활용하는 경우는 19.4% (삼성경제연구소, '12.5)

- 이동통신사업자, 포털사업자 등이 자사가 보유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

□ 향후 전망

- 빅데이터 시장은 2010년 32억 달러에서 **2015년에는 169억 달러**로 연 39.4%(ICT 전체 성장률 약 7배) 성장 전망 (IDC, '12.3)

- 빅데이터 산업이 시장 형성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주목받는 이유는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등 직·간접적 경제 효과 때문

※ 맥킨지는 세계 경제에서 큰 비중(약 40%)을 차지하는 의료, 공공, 제조, 소매, 통신 5개 분야에 대한 빅데이터 활용 효과를 제시 (맥킨지,'11.5)

- 美 의료 분야 연 3,000억 달러, 유럽 공공분야 연 2,500억 유로(그리스 GDP 규모), 제조업 제품개발비 50% 절감, 소매업 이윤 60% 증가(맥킨지,'11.5)

3. 문제점

- (기술 격차) 현재 빅데이터 관련 플랫폼 기반 및 요소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력 격차가 크고 이로 인한 기술 종속이 우려
- (전문인력 부족) 대용량의 데이터를 수집·관리·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저변이 취약하고 최고급 인력은 소수에 불과
 - ※ 실제 빅데이터 기술을 능숙하게 관리할 수 있는 국내 소프트웨어 인력은 100명 내외 인 것으로 평가 (삼성경제연구소, '12.5)
- (정보자원 확보 어려움) 국내외적으로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추세이나 국내의 경우 활용할 만한 정보의 공개가 미흡한 수준
- (개인정보보호 문제 심화) 빅데이터 환경에서 기업의 항시적인 개인 정보의 수집과 분석 시도는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높음

4. 정책방안

- ① 신규 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한 시범서비스 추진
 - 방송통신, 교육, 교통,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수요가 제기되고 있음
 - ※ 기업들은 가장 시급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정책으로 시범서비스를 꼽고 있음
 - 관련 기술을 조기에 개발하고 서비스 수요를 선도적으로 창출하여 확산시킬 수 있도록 매칭펀드 공모 방식으로 핵심 분야를 발굴

② 빅데이터 기술 및 플랫폼 경쟁력 강화

- 대용량 데이터 수집/통합, 저장/관리, 분석, 가시화에 필요한 클라우드 기술, 분산컴퓨팅 기술, 지능화 기술 등 핵심 요소기술을 중점 개발
- 오픈소스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하고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공개

③ 전문인력 양성

- 빅데이터 R&D 및 시범사업 추진시 대학과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고루 갖춘 석박사급 고급인력을 양성
- 국내 SW 전문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과 제휴하여 빅데이터 관련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실무인력을 양성
- 민간 중심의 빅데이터 분석가 자격증(Chartered Big Data Analyst)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기업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도 개최

④ 빅데이터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정보공유 체계 마련

- 데이터 수집/저장/분석용 H/W, 데이터 수집엔진 및 분산처리 S/W 등을 갖춘 산학연 공동 활용 빅데이터 지원센터를 구축
 - 연구 및 활용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시범서비스 수행, 중소기업 컨설팅 제공 등 종합지원 기능 수행
- 개인정보, 기업기밀 등의 노출 없이도 원시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Open-API 형식의 개방형 정보공유(Open Data Interface) 체계 마련

⑤ 빅데이터 산업실태 조사

- 국내 빅데이터 산업 관련 업체, 시장 규모, 사업모델, 빅데이터에 대한 인식 및 활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실시

⑥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도 개선

- 정보의 수집, 저장, 분석, 활용 단계별로 익명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장치 마련
- 일반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검증하는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PIMS) 인증제 개선

⑦ 빅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개선

- 빅데이터의 연구·활용, 기술개발 및 표준화, 인력 양성, 정보 활용 문화 확산 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 도출